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리다



2022년 송내도서관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여한 누리. ©가온누리가족



팽목항 선착장에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4656장의 타일을 연결해 꾸민 기억의 벽이 있다. ©신정임



세월호 제주기억관. ©장태린

'4·16' 10주기...유가족·활동가 등 활동 담은 '기억의 공간...' 10인의 작가 집필...“기억의 방”은 한 아님 새살 돋는 신생의 방”

'4·16'.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4·16세월호 참사는 가장 슬프고 뼈저린 고통 가운데 하나다. 생때 같은 자식들이 망망한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아 했던 부모들의 심정은 필설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4·16이 돌아왔다. 바로 10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수장'되는 끔찍한 사고를 생생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지켜보아 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더 안전한 사회로 변화했을까. 많은 생명들을 잃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의 문화는 별반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그때만 해도 구조될 거라고 믿었어. 아이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잘 있다가 기적처럼 올 거라고... 촛불을 들고 간절하게 마음을 모으면 아이들이 모두 돌아올 줄 알았어. 단원고에 모인 촛불이 화랑유원지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안산문화광장으로 이어졌어."

세월호 참사 이후 기억과 추모, 연대를 매개로 약속을 실천해가는 이가 있다. 안산지역에서 '기억과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고명선 씨다. 고 씨는 지난 2017년 4·16기억저장소에서 펼쳐졌던 4·16 민주시민교육원 1기 수료생이다.

고 씨처럼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희생된 아이들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살아있는 이들도 더 이상 무참한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이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리다' (한겨레출판)는 기억의 공간을 모티브로 다양한 각도에서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을 전개해 온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기억을 담은 공간', '기억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책은 지난 10년의 시간을 거쳐 온 기억의 역사다.

책에서는 생존자를 비롯해 유가족, 활동가, 가족협의회, 봉사단, 416합창단 단원, 4·16기억저장소 소장, 4·16가족단 '노란리본'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과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책을 발간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의 기획으로 송경동 시인이 여러 분야 구술, 인터뷰활동을 해온 10인의 작가를 모았다.

작가들의 면면은 이번 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노동인권 활동가 박내현, '기록되지 않은 노동'의 공저자 변정운, 르포 작가 진정임, 기록 노동자 회장 등 10명의 작가가 '안전사회'를 향한 열망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이들이 만난 인터뷰이들 또한 지나는 10년을 성실히 증명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억과 약속'을 실천하는 고명선 씨는 지금의 활동을 하는 것은 "나만의 애도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억교실에 오신 분들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글을 많이 남긴다고 했다.

목표 상황에서 자원 활동을 하는 시민 김애숙 씨



는 유가족과 보낸 시간, 그들과 한 약속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새해 첫 날, 추석 전날 상차림을 준비하면서 하루 속히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 그는 "부모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라며 "나 내 자식 같고, 나는 부모니까"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참사 당시를 고스란히 복원한 2학년 교실과 교무실은 맥박함을 준다. 기록관리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온 이은화 씨는 책상 위의 낙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글, 사진, 책 등이 기록에 포함되는데 공간을 기록으로 상징하는 것은 "기억교실이 세월호참사를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배우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에는 지난 10년의 유가족, 활동가들의 사진도 선별해 수록하고 있어 그간의 세월을 가능할 수 있다. 기억의 공백을 의미있게 메우려는 시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지닌 기억의 힘으로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훈 작가는 추천의 글에서 "기억의 방"은 한을 저장하는 창고도 아니고,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돌아오는 신생의 방이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뉴욕 맨해튼에 전시된 벨리곰.

(화순군청 제공)

화순서 보는 화제의 설치작품 '벨리곰'

편의점 젤리, 곰 변신 MZ세대 인기... 19~28일 고인돌 유적지 일원

슈퍼문이 뜬 날 밤, 편의점에서 안줏거리로 사 온 '젤리'가 달의 기운을 받고 대형 곰돌이로 변신한다. 곰돌이는 고깃집에서 젤라틴이 든 겹데기를 무전취식한 뒤 알바비를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무슨 이야기일까.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곰인형 캐릭터 '벨리곰'에 대한 '전설'이다.

롯데 홈쇼핑이 뉴욕 맨해튼, 서울 롯데월드타워 등에 설치해 주목받은 '벨리곰'이 화순을 찾는다. 화순군이 오는 19~28일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 캐릭터 '벨리곰'을 활용, 전통문화유산 축제에 젊고 트렌디한 요소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벨리곰 실물 인형은 축제 기간과 맞물린 오는 15~28일에 설치돼 시민들을 만난다.

화순군 관광체육실 축제기획팀 김정섭 주무관은 "이번 축제는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벨리

곰'을 모티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가 된다"며 "뉴욕과 서울 등에서 전시됐던 '벨리곰'을 지역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벨리곰' 등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곰 캐릭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이나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 DM 버스킹'이라는 주제로 대중 가수들을 만나는 스페셜 무대도 마련된다. 화순 고인돌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20일에는 가수 최백호와 양희은, 21일 흰(박혜원)과 쉐, 27일 권인하, 28일 적우 등도 만날 수 있다.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를 등록해 인증샷을 업로드한 관광객들에게는 벨리곰 키링 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일 한정 개수 지급) 무료 관람이며 축제 기간 중 5일(하루 5회) 화순 읍 셔틀버스 운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노벨문학상 은 포세-한국 독자 23일 온라인 만남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 작가 윤 포세(사진)가 한국 독자와 온라인으로 만난다.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 주한노르웨이대사관은 남북회 '2024 남북공감-윤 포세를 읽다'를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연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여울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남북회에는 작가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출연해 한국 독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홍재웅 교수와 육호수 시인도 참여해 윤 포세의 문학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 영상은 향후 대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된다.



윤 포세(65)는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한 이후 '이름', '누군가 올 거야', '밤은 노래한다', '기타맨', '어느 여름 날', '가을날의 꿈', '나는 바람이다' 등의 희곡과 '아침 그리고 저녁', '멜랑콜리아', '보트하우스', '사이닝' 등의 소설을 썼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